

유학자 설암 권옥현 선생 학술 강연회 열려

지난 6월1일 부산 연제구 다이아몬드호텔 대연회장에는 진경성이 펼쳐졌다. 10시쯤부터 유근에 도로 차림을 한 인사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이 마치 향교나 서원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바로 영남의 마지막 유학자라 일컫는 설암(雪嶽) 권옥현 선생의 20주기 추모 학술 강연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설암 권옥현 선생은 1912년 경남 함천군 대병에서 태어났으며, 1999년 향년 88세로 천수를 다할 때까지 평생 재야의 한 학자로 성리학에 전념하셨다.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을 흠모하고 추연 권용현, 연재 송병선의 학통을 중심핵으로 田愚, 吳震泳, 鄭載奎, 許愈, 郭鍾錫 등 당대 유학 거장들의 학풍과 학설을 직접, 간접으로 접하며 폭넓은 학문의 경지를 이루셨으며, 저서로는 18권 6책의 '설암문집'을 남겼다.

강연회를 주최한 '모암계(慕嶽契)'는 설암 선생을 흠모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며, 설암 선생으로부터 유학을 사사한 제자를 중심으로 선생 사후 이해인 2000년 결성되어 20년 가까이 설암 연구와 추모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동래여고 박영진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는 계장인 정경주 경성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부산교대 이상의 교수, 경상대 강정화 교수, 단국대 허호구 초빙교수 등 각계 지명인사와 계원 및 제자, 가족, 친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생과 선생의 학문적 성취를 기렸다.

주순인 권석근 (주세일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매년 자택에서 행하던 행사를 서거 20주기를 맞아 학술 강연회로 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강연에 참여한 교수진과 참석 내빈에게 감사의 뜻을 표



하였다. 이어서 강연에 나선 이상의 교수는 성리학의 기본 개념과 함께 설암문집을 중심으로 설암 권옥현 선생의 성리학적 기본 입장과 주요 논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강정화 교수는 설암의 기행시를 장소별로 세분하여 관동과 화양동을 자주 찾은

내력을 밝혀내고, 그 연유를 영남학과 일색인 영남에서는 드물게 기호학파인 율곡과 우암을 존중하고 그 학문을 계승하려 한 의지로 해석하였다.

또 설암의 시대와 학문적 연원을 발표 한 정경주 교수는 독립과 함께 찾아온 신·구학문의 교체기에 대부분이 구학(舊學)을 의미하는 가운데 만년까지 유학에

심취하고 발전된 이론을 갈구해 온 설암 선생을 마지막 유학자로 칭송하면서, 인간 심성을 고찰해 온 성리 사상은 급변하는 혼돈의 시대인 지금, 인간 존중과 올바른 길을 성찰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규범임을 강조하였다.

〈부산 사무국장 권채영〉

독립운동가 권승준

독립운동가 권승준 선생(權承俊, 1906 ~ 알 수 없음, 추밀공과 33대)은 일제강점기 때 중국으로 망명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이다. 권승준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한 뒤 중국 훈춘현 춘화구 낙양반일유격대(琿春縣 春化區 洛陽 反日遊擊隊) 대원으로 활약하다 항일전쟁 중에 사망한 듯하다. 그때가 1981년경이었다. 1981년에 권승준의 국적은 조선이었다. 결국 중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독립운동가 권승준 선생이 항일 전쟁에 참전하여 반일 유격대원으로서 혁혁한 공적을 세웠음을 화북현 인민정부(和龍縣 人民政府)에서 1차적으로 1957년 3월 1일자로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고 혁명열사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후 중국정부에서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로 발급한 증명서를 모두 회수하였다. 권승준 선생의 큰 딸 권옥순씨가 왕청현으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호적을 옮기면서 다시 혁명열사증 발급을 왕청현 민정국(汪淸縣 民政局)에 요청하자 1984년 12월 30일 2차로 다시 혁명열사증명서를 장녀 권옥순(權玉順)씨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때 공적인 일로 순직한 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의미로 정부에서 주는 돈(撫恤金額 180원)을 받기도 했다.

권승준 선생의 손자 권명학(權明學, 35대)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문득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다 항일전쟁 중 희생되었던 사실에 대해 중국정부도 인정하고 혁명열사증명서(革命烈士證明書)까지 발급해준 마당에 한국정부에서도 인정받을 방법이 없나 하고 고민하다 6월 19일 오전에 전 국방부장관 권영해 장관의 소개로 우키시마호 진상규명회 대표 전재진 작가와 함께 대중회를 방문하였다. 권명학씨의 증언에 따르면 할아버지 권승준 선생의 묘는 이에 대해 반박의 글을 1963년 1월호에 게재한다. 이것을 다시 윤 신부가 반박하여 논쟁은 불꽃을 튀겼다. 지금도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1967년 윤이상 등 저명한 문화예술인과 지식인들이 연루된 그 유명한 동백림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한일회담 반대투쟁인 6.3사태 등 주요 시위의 배후인물로 알려진 서울대 사회학과 황성모 교수를 변호하였다.

권승준 판사는 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동삼당소 개소를 주도했으며, 가정법원 개원의 책임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탄운의 막내딸인 권용은 안산대 교수가 42년 만에 아버지 권승준 판사의 추모집 '인간 가족' (신촌책방)을 펴냈다. 탄운은 양촌 권근의 둘째 아들 지재공(止齋公) 제(颯)의 후손이다. 지재공은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탄운은 셋째 아들 안양공(安襄公) 반(攀)의 후손이기도 하다. 선조 중해주목사를 지낸 윤(胤, 22세) 때로부터 평산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황해도와 함경도 도시를 역임했던 23세 광렬(光烈)에 이르러 평산에 세거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손들이 대대로 평산에서 천석꾼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 이곳저곳으로 자주 이사를 다녔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다고 한다. 또 어머니로부터 키가 훗날하게 크고(약 180cm) 권총을 어깨에 찬 할아버지의 사진이 딱 한 장 있었는데 그마저 분실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권승준 할아버지는 항일전쟁 중에 직급이 높은 분과 같이 근무했는데 일본군에 의해 포위되자 그 높은 상관과 옷을 바꿔 입고 끝까지 싸우다 훈춘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웃집 임봉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훈춘에 살았는데 하루는 일본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부르더니 권승준 할아버지를 작두로 목을 자르더라는 것이다. 임할아버지는 그 끔찍하고 생생한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손자 권명학씨가 어릴 적에 그 임봉실 할아버지는 권명학씨의 집에 올 때마다 내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대단한 할아버지의 후손이 중국에서 발급해준 혁명열사증명서를 가지고 대중회를 찾아온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나라가 망했다. 이때 젊은 청년 권승준은 조국에서의 일신의 모든 안락함을 다 뒤로한 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여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조국의 광복도 보지 못하고 일본군에 체포되어 장렬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당당하게 독립운동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중회에서 안동권문의 자랑스러운 권승준 선생의 그 숭고한 뜻과 일을 기리고 국가보훈처로부터 당당하게 평가받아 중국의 혁명열사를 넘어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즉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국장 권행완



혁명열사증명서

권승준 동지, 항일전쟁 중에 장렬하게 희생하였으므로 비준을 거쳐 혁명열사가 되었기에 특별히 이 증을 발급하여 이에 보상을 주고 표창함

중국인민공화국인민정부
1984.12.30.

권순영 판사, 법은 정조라고 하여 모두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도 타국 사람들과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어느 국가도 사법관이 부패하면 멸망하는 것이다. 훌륭한 법관의 양성과 공정한 사법의 운용은 전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1955년 '법정의 불'을 출판한다.

바로 이 해에 한국판 카사노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박인수 사건이

탄운(彈雲) 권순영(權純永, 추밀공과 37세, 1920-1977) 판사는 황해도 평산군이 고향이다. 그의 아버지 권혁명(權赫命)은 평산군에서 제일가는 천석꾼이었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에 유학을 가기도 했으며 조선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삼성의숙(三省義塾)이라는 사학을 건립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권순영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경성 제일 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경성제국대학(지금 서울대학교) 법과를 졸업했다. 그러나 딱딱한 법률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 강의시간에 강의를 듣기보다는 주로 문고판 소설책을 읽곤 했다. 그래도 일본으로 유학 가서 법률 공부를 더하고 싶었으나 일본인이 교장이 비국민이라면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 가지 못했다. 1945년 느닷없이 광복이 되었다. 북한 지역에서는 1946년 1월 31일 농민연맹이 결성되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법령제정으로 3월말까지 토지개혁이 빠르게 실시되었다. 부친은 약덕지주로 물러구속되었다가 간신히 풀려났다. 온 가족은 1946년 3월 16일 새벽 2시 황해도 평산군 용산면 광암리 395번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남한으로 남하한 부친은 수원에 가까스로 정착했다. 남한정부는 부족한 판검사 임용을 위해 판사특임시험(1946)과 간이법원판사 임용시험(1948)을 실시했다. 탄운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는 정령한 법관이 되고자 다짐한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터진다. 박인수는 대위를 사정하며 댄스클럽 등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혼인빙자 간음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지금도 가끔 화제가 되곤 하는 이 사건을 권순영 판사가 맡게 된다. 1심에서 권순영 판사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혼인빙자 간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린다.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은 정조라고 하여 모두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이상에 비추어 가치가 있고 보호할 사회적 이익이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당시 사회는 1954년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는 소설도 적잖이 못한 상태였다. 하물며 희대의 카사노바를 옹호하

능암계 총회 陵巖契總會

안동권씨 중앙총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경북 청도 남중공의 춘추향을 받들었던 경주 영천과 경남 안양 지역 15개 문중 모임인 능암계(陵巖契) 정기총회가 지난 6월 13일 경주 운곡서원에서 5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두동 문중(유사, 좌운공과 36세 권상택)의 주관으로 열렸다. 권영길 경주중흥회장(전 경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주에 사는 족친들은 아시조를 모신 이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존중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조 연일향교 전교와 권혁근 봉산재 위원장, 권혁무 운곡서원 위원도 축사를 했으며 권혁성 연일문중 대표는 능암계의 설치 목적과 유래를 설명, 박수를 받았다. 안동 시조소의 능(陵)자와 아시조의 단소가 있었던 경북 청도 공암(孔岩)의 암(巖)자를 딴 능암계(陵巖契)는 1974년 경주와 영천 안양 지역 15개 문중이 참

여해서 아시조이신 남중공의 춘추향을 병행했다. 능암계 초기엔 경남 안양과 산내, 경주 평동, 포항 죽장(임암), 대송 사곡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지만 재일교포 후손들에 의해 김포에 아시조 위도답이 마련되고 안동에 단소가 설치된 2011년 이후부터는 계의 목적이 사라져 여러 문중이 떨어져 나갔다. 지금은 경주의 두류, 두동, 흥천, 다산, 국당, 연일문중(6개 문중은 좌운공과

전공(북아공과), 구길(추밀공과) 등 8개 문중이 친목 모임 형식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1974년 능암계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모임이 있어 남중공의 추향을 받들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어려운 시기에도 한시인(漢詩人)이셨던 해운공(海隱公, 諱 寧燾, 1991년 下世)을 비롯한 경주와 영천 지역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향을 받들다 능암계로 확대된 것 같다. 2011년 안동 시조소에 단소가 설치될 때 경주와 영천지역 후손들이 이전 반대가 심했던 원인도 조선에서 1970년대까지 아시조의 묘소를 살피고 추향을 모셨던 정신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편집위원장 권오신

